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주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대표하도록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짐

성경: 고후 5:18-20, 6:11-13, 10:8, 12:15, 13:4, 10

I.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 — 고후 5:20.

- A. 화목의 사역은 우리를 완전히, 철저히, 전적으로, 남김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 고후 5:18.
1. 화목의 사역은 단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믿는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 고후 5:19-20.
 2.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완전히 우리 안에 계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까지, 우리에게는 화목의 사역이 필요할 것이다.
- B.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요구된다 — 고후 5:19-20.
1.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할 대상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하나님과 더욱 전진된 화목을 이루어야 할 믿는 이들이다.
 2. 화목하게 함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 고후 5:19.
 - a.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게 하셨다 — 고전 15:3, 눅 24:46-47, 요일 2:12.
 - b.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방면이다. 이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 죄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다 — 벰전 2:24, 사 53:11-12, 히 9:28, 골 1:22, 롬 8:3.
 3. 화목하게 함의 두 번째 단계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을 육체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 고후 5:20.
 - a.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다 — 고후 5:14-15.
 - b.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아니고 온전한 조화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의 화목하게 함이 필요하다.
 - c.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 롬 6:6, 8:13, 갈 5:24, 마 16:24.
 - 1)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폭로하시고 우리의 실지 상황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 요일 1:5, 7.
 - a)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를 주관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 b)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십자가로 제해될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함의 두 번째 단계를 체험

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라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

2) 화목하게 함의 두 번째 단계는 한 번 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4.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의 두 방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하신다 — 롬 5:10, 고후 5:19-20.

II.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넓어진다 — 고후 5:20, 6:11-13.

- A.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까지 화목하게 되었는데 달려 있다.
- B. 마음이 좁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지 부분적으로만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정도가 아주 낮다는 것을 뚜렷이 나타내 준다 — 고후 6:12, 롬 5:10.
- C.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 편협한 사람들은 보통 마음도 좁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 고후 6:12-13.
- D. 지혜로운 것과 마음이 넓은 것은 한 가지의 두 방면이다. 지혜를 얻는 비결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 왕상 4:20, 29.
 - 1. 지혜로운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다.
 - 2. 어떤 사람이 좁고 그의 마음도 좁다면, 그는 쉽게 교만해진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좁다는 표시이다.

III.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다 — 고후 5:20, 10:8, 12:15, 13:4, 10.

- A.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자격이 있었다 — 고후 5:20.
 - 1.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주 안에서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 a.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께 주셨다 — 마 28:18.
 - b.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이신 그리스도, 곧 만물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다 — 행 2:36, 10:36, 딤후 6:15, 계 17:14, 19:16.
 - c.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어떤 대사들을 필요로 하신다 — 마 28:19.
 - d. 새 언약의 사역자는 하늘에 속한 권위를 부여받아 최고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 고후 3:6, 5:20.
 - 1) 사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위임을 받았다 — 마 10:40, 요 13:20, 갈 4:14하.
 - 2)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의 대표자들, 곧 그분의 대사들이다 — 행 9:6, 10-17, 22:12-16.
 - 2.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 고후 1:3-4, 12, 15-16, 2:10, 10:1, 11:2.
 - a.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믿는 이들을 위로하였다 — 고후 1:3-4.
 - b. 바울은 단순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처신하였다 — 고후 1:12.
 - c.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간 것은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가신 것이었다 — 고후 1:15-16.
 - d.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특정한 어떤 문제를 용서하였다 — 고후 2:10.
 - e.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믿는 이들에게 권면하였다 — 고후 10:1.
 - f.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로 성도들에게 질투하였다 — 고후 11:2.

- B.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에서 한 번 실패한 사례에서 엄중한 공과를 배워야 한다 — 민 20:2-13.
1. 반석을 두 번 치고 백성을 반역자라고 부른 것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았다 — 민 20:10-12.
 - a.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다른 모든 거짓 신과 분별함으로써 그분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속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 민 20:12.
 - b. 모세는 백성에게 화를 낸 일과 반석을 두 번 치는 잘못을 저지른 일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았다 — 민 20:10-11.
 - c.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화를 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고,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 민 20:10-12.
 - d.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손상했다. 모세는 백성을 반역자라고 유죄 판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사람은 모세였다 — 민 20:10, 24, 27:14.
 2.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의 신성한 경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3.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 C.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그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 마 8:8-9.
 2. 그는 자신 안에는 권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마 28:18, 고후 10:8, 13:10.
 3.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 엡 1:9, 5:17.
 4. 그는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마 16:24.
 5. 그는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통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 고후 6:17, 1:9, 요일 1:3.
 6. 그는 결코 주관적이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 고후 3:5.
 7. 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자애로워야 한다 — 눅 6:35, 비교 롬 5:15-16, 고전 2:12.
 8. 그는 부활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 고후 1:9, 4:14, 민 17:1-10.
 9.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위치를 취해야 한다 — 민 14:5, 16:3-4, 22, 45, 마 11:29, 롬 12:16, 눅 14:7-11, 벰전 5:5-6.
 10. 그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출 16:7, 민 14:2, 5, 9, 27, 마 6:14-15, 고전 4:6-13.
 11. 그는 자신이 무능력하고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 출 3:11, 4:6-7, 10, 고후 3:5, 고전 15:10.
 12. 그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출 32:11-12, 고후 5:18, 20, 엡 6:20.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육체의 부서짐

회장, 즉 육체는 하나의 성막을 두 개의 성막으로 만든 요인이었다. 이것은 심지어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육체는 하나님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육체도 못 박혔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지적해 준다(마 27:5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육체는 찢어졌지만, 체험 안에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온전하다. 그것은 아직도 갈라지거나 찢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혼 안에, 즉 첫 번째 성막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아직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부서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영 안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는 대신 육체 안에서 외적으로 주님을 부를지도 모른다. 때때로 어떤 형제와 그의 아내가 다투고 있을 때,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런 말은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잡담하거나 비판할 때뿐 아니라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도 육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신약의 믿는 이들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즉 혼 안에 남아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아직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막 안의 휘장은 네 기둥에 달려 있었다. 우리는 기둥들이 교회의 더 강한 지체들인 특별한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성막의 기둥들은 널빤지들보다 더 강했다. 널빤지들은 얇았으나 기둥들은 두꺼웠다. 우리의 체험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널빤지가 다루심을 받은 후에 기둥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 기둥들, 즉 더 강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증거를 잃어진다. 물론, 교회를 인도하는 이들은 모두 기둥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 안의 더 강한 이들, 즉 인도하는 이들의 육체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모든 교회는 첫 번째 성막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성막으로 들어가는 데 방해받을 것이다.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인도하는 이들의 육체가 갈라졌느냐 갈라지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 즉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이 육체는 찢어진 휘장이 되어 온 교회가 둘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출구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상황이 인도하는 이들의 육체의 부서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본다. 이것은 내가 수년에 걸쳐서 관찰해 온 것과 일치한다. 어떤 지방의 교회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진정으로 기둥들의 육체가 부서졌는지, 즉 인도하는 이들의 육체가 부서졌는지에 달려 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100장, 1201-1203쪽)*

모세는 백성에게 화를 낸 것과 반석을 두 번 치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는 데 실패함

모세는 백성에게 화를 낸 것과 반석을 두 번 치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았다. 모세는 화를 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다.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그의 형에게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주셨다(민 20:12-13, 24, 27:12-14).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다.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 갔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일에 있어서 모세는 옳았다. 화가 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도할 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신언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도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말했다(롬 11:2). 엘리야의 탄원은 사실상 그가 백성들을 고발한 것이었다.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경우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경우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민 20:12)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그분을 믿지 않은 것과 백성들 앞에서 그분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도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표하지 못했다. 화가 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진멸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20장에서 문제가 백성들의 목마름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알고 계셨다. 어머니가 목말라 우는 어린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그 아이를 보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목마른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물을 공급할 책임을 맡으셨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자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 상황은 23장과 24장의 상황과 비슷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저주 대신 축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할 수 없었던(23:8) 발람은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도다.”(21절)라고 말했다. 24장 5절에서 발람은 계속하여 “야곱이여, 그대의 천막이,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수려한지!”라고 말했다. 20장에서의 모세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죄악과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악도 잘못도 없었다. 이것은 비록 모세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이 순간에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뜻한다.

물의 문제를 대할 때 모세는 그릇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였고 하나님을 대표할 지위를 가졌지만, 여기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대표하였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사실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모세는 마음이 상했고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회중을 모아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는 “이 반역자들이여, 이제 들으시오.”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말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다. 그가 실수로 말한 것은 하나님을 속된 분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았으며, 모든 다른 신들과 분별되시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세야, 너는 나를 올바르게 대표하지 않았다. 너는 백성들에게 나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네가 화를 낼 때, 너는 그들에게 내가 화를 냈다는 인상을 주었다. 너는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특별한 하나님으로, 모든 다른 신들과 분별된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너는 백성들에게 공홀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나를 제시하지 않았다.” 모세가 대표했던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표자인 모세 또한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1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들’이라고 불렀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프리바 샘에서 나의 말을 거슬렀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말했던 것을 하는 대신 다른 어떤 것을 행했다. 백성들은 나를 비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물이 필요했으며, 오직 나만이 그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다. 백성들이 목마른 것은 잘못이 아니며, 그들은 나를 반역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들을 반역자들이라고 유죄 판결했지만, 나의 말에 반역한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르게 대표했다. 금송아지를 경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마음 상하시게 했으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는 나의 진노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

다.”(9-10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들었을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여호와 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백성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 백성을 산에서 죽여 지면에서 진멸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이끌어 내었구나.’라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뜻을 바꾸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11-12절) 겉으로 보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표했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그분을 잘못 대표하였다.

민수기 20장에서의 모세의 체험은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공과이다.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성도들에게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어머니가 그녀의 자녀가 비난받고 비평받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비평할 때 마음이 상하신다. 주님의 백성들에 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하라. 여러분은 성도들이 너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민수기 20장에 계시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다는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게 되는 것이며 분별되는 것이다.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은 거짓된 다른 모든 신과 다르시다. 거짓된 신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유형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본성에 있어서 그분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동정심이 가득하시다.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다들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다. 만일 그분의 백성을 벌하시려고 했을지라도, 그분은 그들을 약간만 벌하셨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라는 땅에 의해 삼킨 바 되었지만, 고라의 후손은 거룩한 사람, 곧 시편 기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제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방의 어떤 성도들에 의해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화내지 말고 그들을 고발하러 하나님께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성도들을 고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그분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는다고 느끼실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 때 급히 말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주의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그분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고 행하는 것마다 전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과 행위들에 있어서 그분께 반역할 것이며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내적으로 하나님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외적으로 그분은 행정과 경륜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행정을 따른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말씀이었다. 따라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잘못 행동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들을 깨뜨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분을 품지 않으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신성한 경륜을 범했다. 그는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으며,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들을 깨뜨렸다. 비록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는 이 일 때문에 좋은 땅에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렸다.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 안에 남아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남아 있는 최상의 길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임을 본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마음 상하고 걸

려 넘어졌을 때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단지 다른 이들을 유죄 판결할 줄만 알고 그들을 용서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는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 마음 상한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자. 용서하는 대신 유죄 판결하고 잊어버리는 대신 기억한다면, 그러한 결혼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기쁨과 행복이 부족할 것이다. 여러분이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배우자로 인해 마음 상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

교회생활은 용서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 기억력이 좋아야 하지만, 다른 이들의 과실들에 대하여는 기억력이 나빠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교회생활 안에 지켜 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도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할 것을 많이 갖게 되고, 결국 교회생활을 떠날 것이다. 교회생활을 위하여 또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영이 필요하다. 그럴 때 성도들을 유죄 판결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의 실수들과 허물들을 용서할 것이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즐거운 느낌을 갖지 못한 데 있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에서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그는 본성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았으며,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다툰 것에 대해 모세가 실패한 일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공과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교회생활이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것과, 교회생활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생활과 성도들이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마음 상하게 한다. 우리는 어떤 형제가 매우 좋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도 마음 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형제가 수년 동안은 좋을 수 있지만, 그도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마음이 상하면 더 이상 교회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시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백성들을 변호하시러 오셨다. 이것으로 인해 모세는 크게 놀랐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리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나의 말에 반역했다. 나의 백성들은 잘못되지 않았다.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민수기 20장을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이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와 다툰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디에서 우리가 물을 찾을 수 있소? 어찌하여 그대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형편없는 곳으로 이끌고 온 것이오? 이곳에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잖소.”라고 말하고 있었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모세와 다툰 후에, 모세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필요에 대하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어야 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가서 내 백성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도록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모세는 그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단지 반석을 향해 말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야 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툼을 대한다면, 교회생활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민수기와 고린도전서 사이에는 분명한 관련이 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생활의 예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는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라고 말하면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발생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그는 10장 6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이라고 말한다.

11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들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실패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옳고 다른 이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가 유죄 판결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러 오실 수 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판단받는 것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본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날에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서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3절의 ‘사람의 날’은 사람이 심판하는 현시대를 가리킨다. 그것은 오는 시대, 곧 왕국 시대인 주님의 날(고전 3:13)과 대조가 된다. 지금 사람의 날에는 사람이 심판하지만, 주님의 날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유죄 판결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로 인해 마음 상한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당신의 기억 속에 다른 이들에 대해 마음 상한 것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말라. 마음 상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으며,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권리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에서의 나의 목적은 단지 교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민수기 20장에 대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현재의 실지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 도움이 될 어떤 빛과 계시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 장의 예표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행정을 존중하기를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공과를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것이다.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29장, 236-244쪽)